

가슴앓이 (5/9/2014)

세상을 살다보면 본의든, 타의든, 가슴아픈 일을 겪게 된다.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가슴앓이를 했을까? 어린 시절에는 공부와 시험, 부모님의 질책, 성인이 되어서는 사랑하는 여인과의 이별, 객지생활의 외로움, 아버님의 갑작스런 죽음, 어린 조카의 죽음, 친척의 배신과 사업 실패, 믿었던 우정과 소원함, 이민생활의 상실과 쓸쓸함, 자식의 기대와 실망감, 가난한 삶의 고통, 육신의 잦아지는 질병 등등.. 이제는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는 강 건너편의 상처들이다. 누구인들 긴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슬픔과 고통의 나날이 적다고야 할 수 있겠는가. 혼자서 긴긴 밤을 속태우며 애꿎는 일들이 어찌 적다고만 할꺼나..

하지만 내 자신과 내 가족이외의 타인들에 대해 진정으로 <가슴앓이>를 해 본적이 있었는가? 한없이 민망하고 망막하다. 나는 진정 가슴이 따뜻한 사람인가? 냉철한 지성의 소유자라고는 억지로 말할 수 있어도, 가슴이 따뜻한 남자는 아닌 것 같다. 한국사람은 <한 (恨)>이 많은 민족이다. 가슴앓이를 <속앓이>라고도 한다. 유난히 겉으로 표현은 못하고 속으로만 꿍꿍 앓거나 삭힌다. 그래서 한국인에게는 다른 민족에 비해 <화병,火病>이 유난히 많다고 한다. ‘애를 태운다. 애간장을 녹인다.’ 등의 표현에 <애>는 <창자>의 옛말이다. 그러니 한국사람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마음뿐만 아니라 심장, 간, 위, 창자 등 내장기관을 모두 작살을 내는 셈이다. 사람은 여러 매체와 오감 (五感, 시각,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서 상대방을 처음으로 접한다. 그런 다음 상대방을 느끼고 이해하고 표현하는 경로(route)가 각기 다르다.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머리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발로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 따라 옮겨 가는 과정이 다르다.

사람들은 할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모두 입을 통해 쏟아낸다. 말은 입과 입을 거치면서 부풀어지고 과장된다. 특히 내가 아닌 그들을 이야기할 때에는 일초의 머뭇거림이나 망설임도 없다. 머리로 생각하기도 싫고 고민하기도 싫은 것이다. 상대방의 일로 머리

아픈 것도 싫은데, 하물며 가슴 아픈 것은 더더욱 싫다. 머리와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데 발이 움직일까? 머리가 지성이면 가슴은 영성인가. 영성이 아프지 않는데 나의 행동에 진정성이 표현될까? 지성인이라고 자칭하는 나와 같은 사람들은 모든 사물을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한다. 상대방이나 타인은 물론, 목사님의 설교, 사물, 사건, 심지어 자연마저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컨설팅이라는 일도 마찬가지다. 하루에도 내 머리 속은 수백건의 매물과 고객들이 씨줄과 날줄처럼 서로 그물망으로 얽히고 설켜 있다. 그런 혼란 속에서 상대방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토론하는 하루를 보내니 퇴근하는 시간이면 머리가 터질 것만 같다. 심지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도, 궁핍히 여기는 마음도 머리로 분석하고 평가한 후 머리로 결정한다. 저 사람은 성장한 배경이, 살아온 환경이, 알고 있는 지식이, 처신하는 행동이, 주어진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결론짓는 것이다. 신용복 교수는 이런 현상을 <문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즉 이성과 논리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강고한 <문맥>에 갇혀있다는 것이다. 타인을 <타자화>하고 자연을 <대상화>한다. <틀레랑스>라는 <관용>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은 하지만, 진정으로 상대방을 가슴 아파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어령 교수는 몇년 전 세례를 받으면서 <지성에서 영성으로>이라는 책을 통해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기독교는 사막처럼 척박한 환경에서의 굶주림과 갈증이 승화된 종교이다. 일관되게 가장 배고픈 단계부터 가르쳐주고 거기서 나아가 또 다른 배고픔과 갈증을 가르쳐주고, 마지막에는 영성에 도달하는 갈증을 가르쳐준다.”라고 했다. 하지만 영성(가슴)으로 도달하기가 쉬운 일인가. 요즈음 그의 어느 글에선가 “지금도 지성과 영성의 문턱을 수시로 오르내린다”고 고백한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길이라고 했던가. 나는 언제 이 <가슴 여행>을 마치고 내 가슴에 도착할 수 있을까. 언제쯤이나 머리로 따지지 않고 진정으로 함께 가슴 아파하는 <가슴앓이>를 할 수 있을까? 김수환 추기경님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평생이 걸렸다고 하신다. 그래서 스스로를 <바보>라고 하대하셨는지도 모른다. 그토록 만인의 멘토이셨던 그분 마저도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여정이 그렇게 멀고도 힘든 길이라면 우리같은 범부야 오죽이나 할까. 생각
같아서는 머리로 따지지 말고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같이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면 될 것을 말이다. 영화 <겨울왕국>의 공주처럼 언젠가는 내 가슴의 얼음이 모두
녹아버릴 날이 올 수 있을까? 내 스스로가 만든 나의 <얼음 왕국>을 녹여줄 사람은 나
자신 뿐이다. 가슴이 따뜻한 남자이고 싶다. 눈물이 많은 남자이고 싶다. 항상은 아니어도
아주 가끔은 그런 따뜻한 남자이고 싶다. 나는 세상에 기적이 있다고 믿는다. 나의
주변이나 손님들 중에는 신앙이 미천한 나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끔은 아주 가끔은 그분들 기도를 하다보면 내 눈에 눈물이 맺힐 때가 있다. 정녕 기적의
신호탄인가, 아니면 신기루와 같은 일시적 현상에 불과한 것일까? <가슴앓이>의
최고봉이신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그분은 아시겠지. 내가 짝수가 있는지
없는지....